

성경(Holy Bible)과 죄의 기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죄의 기원, 인류의 타락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이 함께 묶여 한 권의 책을 형성하고 있다. 성경의 저자는 왕, 농부, 법률가, 장군, 정치가, 제사장, 세리,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신분과 시대가 다른 약 36명이 제각기 다른 저자들에게 의하여 1600년간에 걸쳐 기록된 책이다.

그러나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2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상단).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하였느니라”(계 1:1, 2).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명백하다(히 1:1).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말씀)이라는 증거

하나님은 미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라고 말씀하신다(사 42:9).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실 수 있다(사 46:9, 10). 그러므로 성취된 예언들은 성경이 믿을 수 있음을 강력히 증거 한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사 13:19, 20).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렘 51:26, 37 참조)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 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겔 29:15).

에굽은 말씀이 기록 될 당시 세계의 주도적인 국가였다. 오늘날 그 나라는 예언대로 이다.

만물의 기원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인간과 꽃들, 나무들, 새들, 동물들, 물고기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성경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었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6, 9).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사 40:26, 28).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의 기원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진화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루의 시간에 관하여서도 확실한 규범을 밝혀주고 있다. 첫째 날의 일이 끝났을 때,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한다(창 1:5 하단).

죄의 기원

죄는 어디에서 시작 되었으며 죄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 또한 성경에 있다.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천사 중 한 존재의 반역에서 기원 되었다.

죄악의 창시자의 이름은 큰 용 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본래의 이름은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받드는 그룹 천사인 루스벨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사단의 존재가 된 것이다. 성경은 루스벨 천사의 반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겔 28:12-13).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겔 28:14 상단).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5, 겔 28:16 참조).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겔 28:17).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 14:12-14)

반역한 천사의 본래의 이름은 루스벨이며 아침의 아들이라고도 하며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천사였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을 원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기면서 얻은 이름이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되었다.(계 12:7-9 참조)

인류의 타락

사단은 뱀을 매개체로 하여 인류의 조상에게 접근 하였다. 뱀은 사단이 하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한 매개체였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허락 받았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였을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고 거짓말을 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슬픔이 생겨났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죄가 용납된 이유

죄와 그의 창시자인 사단의 존재와 죄가 용인된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으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한정된 기간 동안에 죄와 사단이 용인되고 있을 뿐이다.

사단의 반역의 진정한 본질과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 그의 악함과 반역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 될 때까지 살아 존재 하여야 한다. 사단의 본질이 완전히 나타나고 모든 인류와 우주의 천사들의 동의와 사단 자신이 스스로 죄를 시인할 때 까지 사단의 멸망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요 1:12, 13).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각 시대의 대쟁투, 46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서울교회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SDA Reform Movement)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www.thelastvoiceofGod.com/ www.imssdarm.net

02) 2207-1233, 010-2460-0070(서울), 010-4185-9928(평택)

